



# 生物學的인 防除法연구에 힘써야

## 病虫害로부터의 食糧源보호는 人類生存과 직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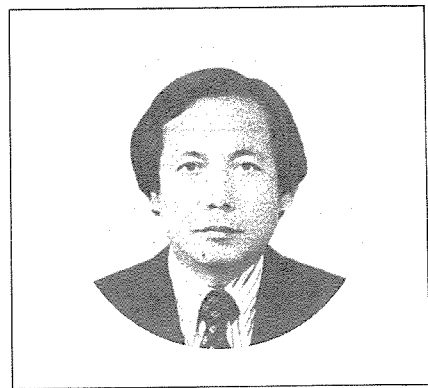
『植物病理學은 식물의 병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식물병의 징후, 경과, 원인은 물론 병든 식물의 형태, 기능, 생리의 변화, 유행의 원인 등을 검토하고 그 예방 및 치료방법까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식물병은 기후·환경 조건은 물론 각 나라마다의 기후와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主作物이 무엇이냐에 따라 연구대상이 다르지요.』

韓國植物病理學會 李斗珩회장(서울시립대 교수·환경원예학과)은 우리나라에서는 水稻 병충해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요즘들어 채소, 과수, 수목 등으로 연구 대상이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人口는 많은데 비해 농토는 좁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多肥密植 재배에 따른 식물병의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病蟲害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따르는 수확량 감소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따라서 식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처방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합니다.』 李회장은 人類의 生存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작물의 재배에 있으므로 식물의 병충해로부터의 보호는 바로 우리 인간의 生存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일례로 19세기 중반에 아일랜드에서는 감자疫病으로 대흉작이 일어나 15년 사이에 100만명이 굶어죽은 한편 150만명은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을 수 없었고 1943년 인도 빵갈 지방에서는 벵게씨무늬病으로 흉작이 들어서 불과 3



◇李斗珩 회장

개월 사이에 200만명이 굶어죽은 참사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926년 벵稻熱病의 발생, 지난 80년에는 水稻作 冷害와 병충해가 겹쳐 외국에서 5백만톤의 양곡을 수입해온 사례가 있는 등 병충해에 따른 대흉작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심지어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은 예가 허다하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식물을 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류를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물론 식량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식물병학의 발전은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식물병학은 일제시대 日本人에 의해 연구가 시작한 이래 60년대초 美國과의 기술협약에 의해 美國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식물병리학자들이 대학강단에 서면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점차 식물병에 관심을 갖고 전공

하는 학생이 늘게됨에 따라 식물병리학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서 학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李회장은 식물병리학 분야는 그동안 농림해충학 분야와 더불어 植物保護學會 속에서 연구활동이 이루어져 왔는데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1984년 9월 창립총회를 갖고 한국식물병리학회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70~8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한다면 우리 학회의 창립이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앞으로 국내의 관련학회와는 물론 국제학회와의 학문적인 유대를 공고히 하고 국내의 관련 산업계와의 산학협동체제도 강화해 나갈 작정입니다.』李회장은 식물병리학은 전문분야가 넓고 다양하며 연구하는 대상과 방법에 따라 더욱 세분되어 날로 향상되는 방대한 지식을 이해하려면 국내의 同學들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므로 국내의 관련학회와의 활발한 접촉으로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학회는 3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을 초청, 韓·中·日 국제식물병리학 심포지움을, 올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본, 인도, 네팔 등 외국 학자 3명을 초청, 국제식물 병리학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1세기의 식물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현재 防除하기 어려운 難防除病 - 세균, 바이러스, 마이크로 플라스마, 물관병 등 - 의 퇴치에 관한 내용이 집중 논의됐는데 農藥 등에 의한 방제보다는 첨단기자재 등을 이용한 生物學的인 방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소개한다.

또한 해마다 4월 21일 과학의 날에는 식물병리학 전공 新規 박사학위 취득자를 초청, 학위논문에 관한 강연회와 함께 회원들의 자질향상

을 위해 新技術 및 최신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고.

李회장은 이와 함께 현재 年 3회 발간하고 있는 學會誌를 4회로 늘려 우수한 논문을 발굴, 게재하고 앞으로 정년을 맞는 회원들을 위한 紀念號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또한 학회 산하에 스토양병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에 관한 연구그룹을 비롯 △바이러스, 마이크로플라스마 연구그룹 △종자병연구그룹 등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는 전문분야별 연구위원회의 설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對농민에 대한 기술지도 및 계몽사업도 적극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인다.

『抵抗性 品種에 의한 작물병해의 방제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耕種的인 면에서 보다 안정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李회장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게 되면 수량감소의 역제는 물론 농약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함께 농약공해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농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작물병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작정이라고 말한다.

李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병을 파악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며 농약에 의존하는 방제법 보다는 생물학적인 방제법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地球村의 인구증가에 비해 농업 생산성의 증대속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食糧自給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병충해로부터 우리의 식량원을 보호하는 문제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李회장은 과학기술이 제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식량만은 농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식물병리학의 발전이 곧 농업생산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나라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 記)